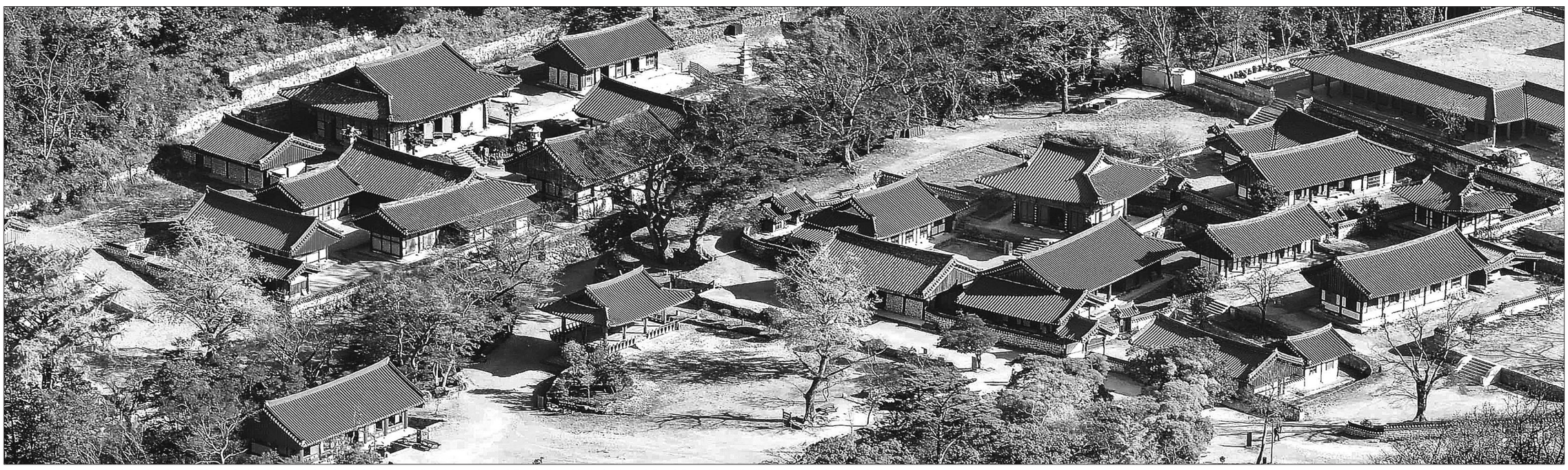
체계적인 자연공원 관리가 불교환경 미래



두륜산 국립공원 내 대흥사. 전통사찰과 자연공원은 뗄 수 없는 관계다. 21세기 불교의 발전을 위해 공원관리 전문성을 키우는 불교계 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④ 21세기 불교와 자연공원

지난 67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제도는 어언 50년이 지나가고 있다.

작년 50주년을 맞이하여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현재 전면적인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원제도가 도입된지 50년의 시간이 경과했지만, 아직도 우리의 자연공원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21세기 바람직한 자연공원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1세기 한국불교의 장점

숲의 종교인 불교는 태생적으로 자연친화적인 종교이다. 잘 알다시피 한국불교는 신라시대 이후 천수백년간 산중에 위치하여 산을 지켜왔다. 생전의 일타 스님께 들었던 말 중의 하나는 예전부터 스님들은 땔나무를 위해 나뭇가지 하나를 자를 때에도 반야심경을 읽고 베었다고 한다. 통도사의 경봉 스님께서는 60, 70년대 통도사의 소나무들을 벌목하려 하자 친히 노구를 이끌고 나오셔서 '송하구승(松下臞僧: 소나무아래 삐쩍 마른 스님이 잘 어울린다.)'이라 하시며, 막으셨다고 한다. 또한 사찰림의 벌목을 막기 위해 산을 지키는 산감(山監)을 두고 관리해오는 등 산의 주인으로서 산주정신(山主精神)을 가지고 사찰이 포함된 산과 숲을 지켜왔다. 이러한 결과 오늘날 많은 사찰림들이 양호한 생태환경으로 인해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21세기 한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불교라는 종교유산은 기본적이고, 생태환경이 매우 양호한 사찰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자연유산은 정말 당당하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산자원이다. 또한 사찰림과 함께 국보, 보물 등 국가 및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유산들도 대부분이 불교문화재이기도 하다. 결국 사찰과 사찰림은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져야 하는 삼세(三世)의 복합유산(複合遺産)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은 어언 50년이 지난 장년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국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정된 자연공원은 국립공원이 22개소, 도립공원이 29개소, 군립공원이 27개소이다. 총 면적 5222.9㎢ 중 국립공원은 3972.6㎢, 도립공원은 1012.6㎢, 군립공원은 237.8㎢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국공유지는 61.7%인 3220.9㎢이고, 사유지는 38.3%인 2002.0㎢이다. 사유지중에서도 사찰 소유토지는 우리나라 자연공원 전체 면적의 7.8%인 411.6㎢이고, 현재 공원 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주 탐방로는 사찰로 가는 길이 포함되고 있다.

지난 50년간 지속되어온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문제점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공원관리의 수준과 관리의 전문성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공원관리는 아직도 정부주도의 수직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리의 전문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자연공원 중 국립공원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은 외형상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 없이 방치된 상황이다.

둘째는 외국의 자연공원의 대부분이 국 · 공유지인 반면에,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은 사유지의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이므로 공원관리상 애로사항이 많으며, 무엇보다 사유지에 대한 행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셋째는 우리나라 자연공원은 자연생태 위주의 외국의 자연공원과는 달리 공원지역내 전통사찰 등 문화유산 등이 많이 포함된 복합유산지역이라는 기본적인 특성이 있다. 공원 내에 대부분 전통사찰들이 포함되어있고, 사찰로 가는 길이 주요한 탐방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넷째는 공원관리시 자연공원의 특성을 무시한 개발행위 등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의해 추진됨으로서 공원관리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무시하는

자연공원 정체성 정립 시급
공원관리 전문성 확보해야
사유권 보상방안도 강구 필요

정책결정들이 일어남으로써 공원지정의 목적과 상치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21세기 자연공원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연공원 제도 시행 이후 50년이 된 현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21세기적 관점에서 보완해 갈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연공원에 대한 개념 및 정체성 정립 문제이다. 우리나라 자연공원중 국립(國立), 도립(道立), 군립(郡立)이라는 용어는 공원면적의 전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일 때에는 타당하나, 우리나라와 같이 사유지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국립(國立)이라는 말 대신 국가공원(國家公園), 지방공원(地方公園)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립(國立)이라는 말 자체가 공원전체가 국공유지(國公有地)라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사찰 등 복합유산적 특성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면, 공원 내 주요 유산자원인 문화환경(문화경관과 문화자원)의 범주를 보다 확대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원지역내 보존 및 관리원칙에 대한 정체성을 정립함으로써 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엄격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는 공원관리의 전문성 확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연생태위주의 공원관리체계에서 탈피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복합유산(複合遺産) 지역이라는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면, 각 공원별로 특성화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로 지정된 국립공원 22개소의 각 공원별 특수성을 고려한 공원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로 몇몇의 자연생태가 우수한 공원을 제외하고는 전통사찰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생태 위주의 관리를 하는 카테고리 Ⅱ지역보다는 문화경관으로 관리하는 카테고리 Ⅴ로 지정하여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공원내 전통사찰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전통사찰가치평가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사찰보존지 전체로 지정하여 사찰의 종교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는 사유권 보장 및 보상방안에 대한 강구이다. 우리나라 자연공원에 포함된 사유지(私有地)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지에 대한 가치(價値) 또는 기여도평가(寄與度評價) 등을 실시하여 적당한 보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1세기 국가규모에 맞추어서 공원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토지는 매입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공원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공원지역이란 이유로 무작정 법적인 행위제약 등을 강요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고, 21세기 국격(國格)에도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넷째는 공원의 공동관리 확립이다. 선진국서는 공원 내 토지 소유자나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원주민들에 대한 권리 보장과 공원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해서 원주민과의 사전협의 및 공동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공원 내 사유지의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공원관리체계를 선진화하여 토지 소유자와 해당 지역주민과의 사전협의 및 공동관리를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21세기 바람직한 공원관리 필요해

자연공원제도 50년을 지나며 새로운 100년을 기약하면서 21세기 바람직한 공원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21세기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공원다운 공원관리를 위해 바로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있다.

무엇보다 지금의 시점에서 새로운 50년을 바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연공원법 전면 개정은 불교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바로 지금 우리는 지난 50년처럼 푸대접을 받고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100년 동안 또 다시 불교계의 자주권을 포기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한다.

비록 종단이 혼란하다하더라도 더 이상 지난 50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바쁘고 힘들더라도 불교계가 산주정신(山主精神)을 가지고, 지난 1700년 동안 지켜온 산과 사찰림을 온전하게 지켜가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본다.



이병인(부산대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교수)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대학장,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 신 대 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8년 8월 1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상단불공의식
◇원서교부 : 2018년 8월 1일 부터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8년 9월 4일 화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승가전통 건강비법
마 가 목(원탕)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 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 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